

2016 새 설계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판로·자금 지원...창업 인큐베이팅 거점될 것”

### 청년창업센터 개소 청년 밀착 지원 국책사업 유치·신산업 인프라 조성 임직원 교육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경제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시대에는 연구와 기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구축된 우수한 인프라와 기업현장중심 사업을 풀가동해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우수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떠나가겠습니다.”

배정찬(62)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난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한해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발상을 통해 조직이 원칙에 충실하고 인격과 덕망을 기조로 해서 존경받고 품위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배 원장은 “지난해 광주테크노파크 제 7대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흔들렸던 기관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그 결과 지난 연말에 국무총리상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기관과 직원, 임직원 모두가 표창을 받으며 ‘행정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등 임직원과 지역민들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 원장은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개선훈미약, 이후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둔화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금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과 경제발전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민선 6기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운영방향 조정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배 원장은 새해 과제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신규 경영과제 수립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의 컨트롤타워 기관인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속적인 사업 유치를 통한 재정자립 강화 ▲법인의 핵심 브랜드사업 확보 ▲기업중심의 다양화·세분화·체계적 관리로 산업생태계 조사 분석 추진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 향

상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취업과 창업 관련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자금을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등 인큐베이팅 기능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7월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여는 광주 지식산업센터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소하는데, 이 센터 운영의 주 기관으로 나서 청년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테크샵 등을 진행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테크노파크 2단계가 우리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담보하는 첨단 융복합산업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신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 원장은 “언제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낳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눈부신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언제나 위기는 또 다른 발전을 주는 기회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배 원장은 서울대와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30년 가까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다양한 R&D과제를 진행했으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을 3년간 역임하는 등 연구역량과 기업지원 경험, 행정력 등 3박자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전력은(사장 조환익·오른쪽) 16일 부탄 수도 팀푸에서 겸 세링 부탄전력청장과 약 300억원 규모의 “지능형 변전소 EPC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 제공>

## 한전, 부탄에 ‘지능형 변전소’ 첫 수출

### 300억원 규모...2018년 준공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지난 16일 부탄 수도 팀푸 현지에서 부탄전력청(BPC) 겸 세링(Gem Tshering) 청장과 2560만 달러(약 300억 원) 규모의 “지능형 변전소 EPC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사업은 부탄 남부 푼출링市 산업단지 인근의 220kV 노후 옥외변전소를 한국형 디지털 자동제어, 감시시스템 등을 적용한 콤팩트 지능형 옥내변전소로 교체하는 것으로 오는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설치될 주요 기자재는 국내 제작사로부터 공급돼 약 140억 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 2014년 10월 아·태전기사업자회의(CEPSI)와 2015년 10월 본사 이전과 함께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2015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

PO)’ 행사 기간 중 부탄전력청과 상호협력 협정(MOU)을 체결하고 인적교류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유럽 등 선진 경쟁사들을 제치고 이번 사업수주를 따냈다.

조환익 사장은 “이번 계약은 디지털 자동제어 장치 등 콤팩트화된 지능형 변전소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주요 기자재가 국산으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일궈내어 상호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전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을 채택한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을 확대하여 국외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중 소비재 박람회 광주 참가 기업 모집

### 상해 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광주상의 26일까지 접수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 중국 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 중국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는 중국 3대 소비재박람회 중 하나로 3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중국 상해시 상해신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리며, 올해 26회째를 맞는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지원하고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등 9개의 성과 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전시회로 다양한 분야의 의류, 장식·공예품, 일용소비품, 액세서리, 가정용 방직품, 경공업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종합상품전이다. 지난해는 30개국 3370개사, 30여만여명 바이어가 참가해 30억 달러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졌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임차료(80%), 항공료 일부(신규70%, 3년 이내 참여 50%), 통역료(100%), 물품 운송료(편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는 중국시장 선점과 교역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올해도 지역 기업들의 수출증대를 위해 광주시와 협력하여 해외 거래선 발굴 및 신규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6일까지 마감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기획진흥부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62-350-5862. /김대성기자 bigkim@

## 졸업앨범 제작 영세 사진관 경영 지원

### 조달청, 대금 30% 선지급

최근 경영난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사진관에 선금을 지급, 영세 사진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조달청책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지난 15일 열린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회전자금으로 졸업앨범 제작 사진관에 선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졸업앨범 계약 및 조달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하고 각급 학교의 주문에 따라 사진관이 앨범을 제작·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졸업앨범은 여타의 조달물품과 달리 학생들이 지급하는 비용으로 제작되는 까닭에 계약업체(사진관)가 선금을 받기 어렵고 이는 영세 사진관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매년 3월~5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인납은 앨범을 납품하는 이듬해 1월~2월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 실정을 감안, 졸업앨범 제작 사진관에 납품대금의 최대 30%가량을 선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685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6	7 12 28 38 40	1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94,367,671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2,686,040	52
3	5개 숫자일치	1,434,385	1,910
4	4개 숫자일치	50,000	95,302
5	3개 숫자일치	5,000	1,576,169

## 카렌스, 16년만에 ‘밀리언셀러 클럽’

### 기아차, 102만8058대 판매

국내에 소형 미니밴 시대를 열었던 주인공 기아차 카렌스가 출시 16년만에 ‘밀리언셀러 클럽’에 가입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1999년 카렌스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2006년 2세대, 2013년 3세대 모델을 잇따라 선보이며 지난해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총 102만8058대를 판매했다.

카렌스는 국내에서 43만7061대, 해외에서 59만997대가 팔렸다. 세대별로는 1세대 46만1922대, 2세대 42만556대, 현재의 3세대 모델이 14만5580대 판매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1998년 미니밴 카니발을 출시하고 1999년에는 이보다 작은 사이즈의 미니밴인 카스타와 카렌스를 연이어 출시하며 승용형 미니밴 시대를 열었다.

카니발·카스타·카렌스는 ‘3 3종사’로 불리며 초창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크기가 비슷했던 카스타와 카렌스 중 선호도가 훨씬 높았던 카렌스가 지금까지



시대를 이어오며 소형 미니밴의 대표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LPG 엔진을 탑재한 1세대 카렌스는 저렴한 유류비를 무기로 2000년에는 베스트셀링카 3위에 오르기도 했다.

2세대 카렌스는 내수 중심이었던 1세대 모델과 달리 유럽 등의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 전체 생산량의 약 4분의 3이 해외에서 판매됐다. 현재의 3세대 카렌스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2012년 9월 파리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기아차는 올해 하반기 카렌스의 디자인과 각종 사양을 강화한 상품성 개선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일 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맑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방수시공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이벤트전시회 카탈로그 다운로드 후 방문 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PALGO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점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